
 국토교통부	보도해명자료	
	배포일시	2019. 12. 27(금) / 총1매(본문1)
담당 부서	도로운영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박문신, 주무관 유현기 • ☎ (044) 201-3911, 3918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도로살얼음 사고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(조선일보, '19.12.27) >

- ◆ 文대통령 블랙아이스 대책 지시에… 4조 드는 ‘도로 열선’까지 검토
- 결빙 취약 도로 바닥에 모두 열선을 깔려면 3조 6000억원이 넘는 돈이 든다는 추산

- 결빙 취약구간으로 지정된 모든 도로에 4조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, 열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.
- 국토교통부는 도로살얼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, 취약구간을 확대·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 - 결빙 취약구간에는 조명식 안내표지판,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,
 - 도로 열선의 경우 결빙 예방 등의 효과는 우수하나, 상당한 운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, 제설작업이 가장 취약하고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범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박문신 사무관(☎ 044-201-391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